

나눔으로 회향하는 특별한 회갑연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보시행 화제

천지의 이치를 통달하는 이순(耳順)을 지나 회갑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평균 수명 연장으로 회갑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으나,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회갑에서 찾는다.

지난 5월 23일 무등산 자락에서는 사회와 지역을 위한 '회향과 봉사'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회갑 잔치가 열려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제공된 음식은 전복을 넣은 삼계탕과 과일, 떡, 나물반찬을 비롯해 10여 가지의 정갈한 음식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출가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많은 어른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5월 23일, 회갑 겸 어르신 초청 잔치 200명 일일히 가정 방문하며 모셔 통일운동·차비밥차 등 지역 귀감

행사의 주인공은 광주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현지 스님은 회갑을 맞이해 상좌스님들과 유발제자들이 준비해 준 축하연을 복구지역 어르신 200여명에게 회향했다.

이날 행사는 스님의 뜻에 동참해 원효사 신도회(회장 김은희)와 청년회(회장 박근웅)가 힘을 보탤었다. 또한 복구정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 200여명을 직접 가정마다 방문하여, 행사장인 무등산까지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영광복지재단 소속의 어르신들까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식전공연, 기념식, 문화공연 및 점심공양이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들



현지 스님이 이날 회갑잔치를 치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소아암백혈병 아이들 위한 사업으로 더욱 알려진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사회단체 중 우수단체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의대병원과 조선대의대병원에서의 백혈병 지원사업과 차봉사, 헌혈은행,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은 대표적 활동이다.

스님의 다른 하나의 사회운동은 통일운동이다. 그중 광주겨레나나는 지난 2005년

북한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광주전남지부만 1억 5천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광주전남농민연대와 공동으로 통일쌀(63톤), 비닐보내기를 전개했다.

현재 원효사는 광주공원에서 매월 '자비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 김치와 연탄을 지역 독거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지도자, 화합과 소통의 탑돌이



도영 스님과 이병호 주교가 탑돌이를 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북지역의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종교간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5월 17일 완주 송광사 봉축 점진식에는 천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원불교 전주 교구장 김성호 교무, 대한 성공회 노기복 신부, 전주 새누리 교회 양진규 목사 등 지역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도영 스님은 이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자비와 사랑이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으로 불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

께 인간 생명을 사랑하고 수호하고 증진하는 평화의 기운을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이병호 주교는 "도영 스님과 대화하다 보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과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깨달음과 지혜의 빛을 밝히자"고 말했다.

봉축 연등점진식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작은 탑돌이를 들고 송광사 경내를 돌며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민 마음 모아 5·18 성료



대행사 주지 정선 스님이 추모법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난 23일 완주군 대웅전에서 열린 최근 보훈처로부터 5.18민중항쟁의 공식가로 거두어졌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 가운데 제33주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 대표 정선, 대행사 주지)가 주최한 가운데 '오월의 꽃 통일로 다시 피어나라!'라는 주제로 이산 통일사회연구소장의 강연과 범능 스님, 가수 박문옥의 추모공연, 생명평화위원회33배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3년이 지난 오늘날 광주시민들이 지켜나가자 하는 5·18정신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다"고 말했다.

추모법회 참가자들은 "5·18정신의 올바른 구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생명평화위원회를 위한 33배에 동참했다.

행사에는 정선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범일 스님, 행법 스님(전선덕사 주지),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명선 스님(연화사 주지), 김경길 5·18민중항쟁 33주년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150여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학생 채식요리대회 열린다

자연음식문화원, 6월 1일 전북대 예지원서

음식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식요리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사)자연음식문화원(대표 유지원)은 6월 1일 전북대 예지원에서 '전복의 맛, 자연채식 음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채식요리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채식요리대회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에게 자연음식의 정신을 전파하고 홍보하고 과도한 육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연음식과 채식의 정신적 가치를 실생활과 접목한 생활문화로서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가지 또는 2가지 내외의 채식 단품요리를 출품하되 육류와 생선, 유제품 및 화학조미료의 사용은 제한된다.

평가는 식재료의 조화, 영양성, 양과 맛 그리고 색의 조화, 메뉴구성의 독창성과 아이디어의 특이성, 현대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부합도 등의 평가 항목을 실제 생활에 응용가능하고 손쉽게 요리 가능정도를 평가해 시상한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063)276-3555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중심사 명사초청법회

2012년부터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중심사 명사초청법회'가 올해 3번째 강운대 광주광역시장을 강사로 강연을 개최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중심사(주지 연광)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이다. 이날 강운대 시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잘 보존되고, 시대에 맞게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무등산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중심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유적"이라며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중심사는 강운대 시장에 이어 6월 23일 서광 스님(미국 서운사 주지), 7월 22일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8월 30일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김혜옥(방송인), 11월 각목스님(초기불전 연구원) 등이 차례로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교도소 장애인 재소자 수계법회 봉행

5월 23일 불자 13명 대상으로...제빵기술 등 전수

군산교도소 직업재활관에 수용되어 있는 불자 재소자를 위한 수계법회가 5월 23일 개최됐다.

불자 장애인 재소자 13명은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송월 스님은 재물관 불자들에게 계를 수지하는 공덕을 설하고 "오를 수지하게 된 삼귀의계와 5계를 묵숨처럼 지키고 생

활해 달라"며 "계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와 인연도 모두 소멸되고 선근 인연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김진수 前전북교사 단장이 주관했다. 군산 교도소 재물관에는 현재 약 70명의 장애를 가진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제과, 제빵' '컴퓨터 수리' 등의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 편지목간 등 5점 공개 학술대회

페이스북 기반 학술문화운동단체인 문문(회장 홍승직)은 5월 25일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새로만난 문물(文物), 다시보는 문물(文物)'을 주제로 제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제시대 사비 편지목간과 함께 백제 의자왕의 외손 묘지

명 등이 공개됐다. 백제 편지목간은 2010년 부여군 319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됐으며 연대는 6세기로 추정된다. 나무를 깎아 종이처럼 사용한 필기도구인 목간에 붓글씨를 쓴 것으로 가난에 쪼들린 이가 권력자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